**영재교육연구 제 26 권 제 1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6. Vol 26. No 1, pp. 123~140
http://dx.doi.org/10.9722/JGTE.2016.26.1.123

#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관찰 평가 도구에 관한 초·중학교 미술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강 병 직
청주교육대학교

맹 희 주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초·중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영재의 관찰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 현장의 초·중학교 미술교사들 사이에는 교사의 관찰 평가에 의한 선발 방식이 미술영재성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 교사 관찰 평가 도구를 활용할 경우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관찰 평가 도구와 관련된 현장 교사의 연수가 매우 미진하지만, 미술영재의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와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영재성 판별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술 분야에서도 미술영재의 행동특성과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술, 미술영재, 미술영재 관찰 평가,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

## I. 서 론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수는 2003년의 200명에서 2014년의 3,57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미술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수는 2009년의 1,069명에서 2014년의 1,844명으로 775명(72.5%) 증가하는 등(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미경, 강병직, 2010), 미술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영재교육기관 수는 양적으로,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표 1> 참조).

미술영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선발의 경우,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미술영재교육원(학급)은 각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 실기 평가, 심층 인

**교신저자**: 맹희주(mhj0805@dankook.ac.kr)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수탁으로 수행된 'KEDI 예체능 영재성 판단준거: 미술개발' 연구에서 현황 조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작성 및 재분석한 것임.

<표 1>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현황(2014년 기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소계 | 총계 |
|---|---|---|---|---|---|---|---|---|---|---|---|---|---|---|---|---|---|---|---|
| 음악 | 637 | 70 | 20 | 49 | 80 | 0 | 77 | 194 | 32 | 20 | 15 | 30 | 14 | 299 | 145 | 40 | 7 | 1,729 | 3,573 |
| 미술 | 798 | 100 | 154 | 50 | 27 | 20 | 56 | 224 | 40 | 20 | 44 | 80 | 15 | 161 | 0 | 40 | 15 | 1,844 | |

터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다단계의 선발 전형에서 선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비중이 높은 것은 실기 평가이다(이지현, 2013). 미술 분야의 영재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 실기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선발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기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미술영재의 선발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미술 분야에서 실기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실기 능력 자체만으로는 미래의 미술적 성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강병직(2011)은 미술영재교육 기관에서 학생을 선발할 당시의 실기 점수와 미술영재교육을 이수한 후의 미술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도 실기 능력은 미술영재의 한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술영재성(giftedness)이 미술 분야의 구체적인 성취 능력(talent)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기 능력 외에도 심리적, 성격적, 행동적 특성 및 환경 등과 같은 다면적인 영역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Clark & Zimmerman, 1984). 그런 점에서 실기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선발 방식은 미술영재의 일부 특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하며, 아직 발현되지 않는 잠재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실기 능력에 의존하는 현 선발 방식은 실기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산출물(결과)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일회적 평가는 미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미술영재적 특성에 대한 관찰을 배제하고 실제의 맥락과 유리된 환경에서 인위적인 시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과 함께 연습된 일면만을 평가하도록 한다. 즉 한 번의 실수에 의해 영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마는 판단 과잉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실기 중심의 미술영재 선발 방식은 미술영재성에 대한 판별을 생략한 체 선발의 절차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판별(identification)과 선발(selection)은 구분되는 것으로서, 판별은 영재성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재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면, 선발은 확인된 영재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영재교육기관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선발 방식은 응시자가 획득한 점수에 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 순위에 따라 해당 미술영재교육기관의 '정원수'에 맞추어 순서대로 발탁 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은 높으나 현재의 성취도는 높지 않은 미성취 영재나 사회경제적 또는 심리적 한계로 인해 시험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미술영재성에 대한 판별(identification) 과정이 생략된 선발(selection) 중심의 현 방식은 미술영재가 아닌 학생이 선발되거나 미술영재인 학생이 탈락하는 등, 결국 미술영재가

없는 미술영재교육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낳고 만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교사 관찰 추천에 의한 선발 방식은 예술(미술) 분야에서 기존의 일회적인 실기 시험에서 볼 수 없는 학생의 잠재적 특성을 장기간 동안 관찰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이미경, 강병직, 2010). 왜냐하면 예술 분야의 경우 영재성은 지필 시험이나 일회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닌 전인격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술 분야에서 교사의 관찰 평가에 의한 선발 방식이 도입된 것은 2012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서울시 교육청은 2012학년도 미술영재 선발 절차로서 1단계-잠재 영재군 형성(집중관찰대상자 선정), 2단계-집중 관찰 수행 및 학교장 추천(집중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원에 응시할 학생 선정), 3단계-수행과정 및 산출물 평가, 4단계-합격자 선정의 과정을 공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산하 미술영재교육기관에서 미술영재를 선발한 것이 그 예이다(김건희, 2012). 미술영재 선발에 있어 교사 관찰 추천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위 학교에서 잠재 영재군을 형성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관찰을 수행하는 방식의 선발 절차와 산출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을 넘어 수행 과정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게 한 것은 기존의 미술영재 선발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은 관찰평가를 통해 학생의 영재성에 대한 예측력 높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신보미, 2010).

그러나 교사의 관찰 평가를 기반으로 한 추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담당 교사의 주관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지현, 2013), 미술영재의 특성을 적합하게 고려한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미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사 관찰 추천을 위한 기준(문항) 구성은 지적 능력, 리더십, 창의성, 자기주도성 등 영역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서울시 교육청, 2012). 하지만 미술영재의 특성이 일반 수·과학 영재와 행동적, 심리적 특성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강병직, 2010), 이같은 영역 일반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는 미술영재성을 적합하게 판별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술영재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는 미술을 전공한 교사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술영재성 판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 교사가 적다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도구는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방식에 대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도구의 필요성,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 도입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사 관찰 추천을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지 개발 및 자료수집 방법

초·중학교 미술교사들이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자의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2015년 6월 3일~4일까지 영재교육 및 미술교육 전공의 교수 3인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선정된 본 조사용 설문문항은 각 범주별로 연구 대상자들의 기초배경, 미술영재 검사 도구 사용 및 연수 경험,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한 인식, 관찰 평가 도구 활용 시 어려움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하위 설문 문항들은 선다형 또는 긍정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하는 리커트 척도,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마련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10일~7월 22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미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교사(182,672명) 중 기타 직위 교사(교장, 교감, 상담, 사서, 보건, 영양, 수석교사 등)를 제외한 전체 1급, 2급 정교사(160,478명)를 대상(교육통계연보, 2014)으로 표집 하였으며, 지역별 초등 교사 수와 중학교 설문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표집 비율을 0.002%로 적용하고 반올림 하였고, 세종시는 전체 초등 교사 수를 고려하여 0.004%의 표집 비율 적용하여 전체 초등 교사 중 총 324명을 설문 조사 대상자로 최종 표집 하였다. 이 중 교대에서 미술교육과 심화과정 졸업자 또는 미술교육 대학원 재학/졸업자를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휴직 교사를 제외한 전체 중학교 교사(105,789명) 중 전체 미술교사(3,967명)의 비율은 전체 3.5%(교육통계연보, 2014) 정도로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수와 중학교 미술교사 수를 고려하여 표집 비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즉 500명 이상 지역(서울, 경기)은 0.05%, 200명 이상~500명 미만 지역(부산, 인천, 경북, 경남)은 0.06%, 100명 이상~200명 미만 지역(대구 외 8개 지역)은 0.07%, 100명 미만 지역(세종, 제주)은 0.1%의 표집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학교 미술교사 중 총 249명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최종 표집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324명, 중학교 미술교사 249명의 총 573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초등학교 미술전공 교사 96명, 중학교 미술교사 67명으로 총 16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받았으며 전체 회수율은 28.4%였다. 설문 대상자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설문 대상자 표집(발송) 및 회수율**

| 지역 | 초등학교 | | | 중학교 미술교사 | | |
|---|---|---|---|---|---|---|
| | 전체 | 표집(%) | 회수(%) | 전체 | 표집(%) | 회수(%) |
| 서 울 | 26,901 | 54(0.002) | 23(42.6) | 640 | 33(0.05) | 18(54.5) |
| 부 산 | 9,245 | 19(0.002) | 8(42.1) | 232 | 14(0.06) | 2(14.3) |
| 대 구* | 8,071 | 16(0.002) | 18(112.5) | 189 | 14(0.07) | 1(7.1) |
| 인 천 | 8,924 | 18(0.002) | 2(11.1) | 209 | 13(0.06) | 4(30.8) |

| | | | | | | |
|---|---|---|---|---|---|---|
| 광 주 | 5,375 | 11(0.002) | 1(9.1) | 138 | 10(0.07) | - |
| 대 전 | 5,369 | 11(0.002) | 2(18.2) | 130 | 9(0.07) | 2(22.2) |
| 울 산 | 3,899 | 8(0.002) | 2(25.0) | 100 | 8(0.07) | - |
| 세 종 | 574 | 2(0.004) | - | 16 | 2(0.1) | - |
| 경 기 | 38,240 | 77(0.002) | 12(15.6) | 935 | 51(0.05) | 8(15.7) |
| 강 원 | 5,540 | 11(0.002) | - | 150 | 11(0.07) | |
| 충 북 | 5,549 | 11(0.002) | 3(27.3) | 145 | 10(0.07) | 1(10.0) |
| 충 남 | 7,371 | 15(0.002) | 5(33.3) | 181 | 13(0.07) | 7(53.8) |
| 전 북 | 6,704 | 13(0.002) | - | 140 | 10(0.07) | - |
| 전 남 | 6,555 | 13(0.002) | 1(7.7) | 183 | 13(0.07) | - |
| 경 북 | 8,334 | 17(0.002) | 6(35.3) | 237 | 15(0.06) | 10(66.7) |
| 경 남 | 11,552 | 23(0.002) | 11(47.8) | 290 | 18(0.06) | 14(77.8) |
| 제 주 | 2,275 | 5(0.002) | 2(40.0) | 52 | 5(0.1) | - |
| 총 계 | 160,478 | 324(0.002) | 96(29.6) | 3,967 | 249(0.06) | 67(26.9) |

* 대구 지역은 설문조사 지원자로 인해 표집보다 회수율이 높음.

## 2. 연구대상자

회수된 전체 163명의 응답자 중 초등학교 미술전공 교사가 96명, 중학교 미술교사가 67명이었으며, 여성(73.6%)이 남성(26.4%)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37.4%), 30대(35.6%)가 많았으며, 지역분포는 서울(25.2%), 경남(15.3%), 경기(12.3%)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경력이 10년 이상 15년 미만(20.9%), 석사학위 자(53.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중 미술영재교육(교육, 행정)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유경험자(30.2%)가 무경험자(69.8%)보다 적었으며, 중학교 미술교사

<표 3> 연구대상자 기초배경 명(%)

| 항목 | | 학교급 | | 전체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 성별 | 남 | 22(22.9) | 21(31.3) | 43(26.4) |
| | 여 | 74(77.1) | 46(68.7) | 120(73.6) |
| 연령 | 20대 | 6(6.3) | 7(10.4) | 13(8.0) |
| | 30대 | 40(41.7) | 18(26.9) | 58(35.6) |
| | 40대 | 40(41.7) | 21(31.3) | 61(37.4) |
| | 50대 이상 | 10(10.4) | 21(31.3) | 31(19.0) |
| 지역 | 서울 | 23(24.0) | 18(26.9) | 41(25.2) |
| | 부산 | 8(8.3) | 2(3.0) | 10(6.1) |
| | 대구 | 18(18.8) | 1(1.5) | 19(11.7) |
| | 인천 | 2(2.1) | 4(6.0) | 6(3.7) |
| | 광주 | 1(1.0) | | 1(0.6) |
| | 대전 | 2(2.1) | 2(3.0) | 4(2.5) |
| | 울산 | 2(2.1) | | 2(1.2) |
| | 경기 | 12(12.5) | 8(11.9) | 20(12.3) |
| | 충북 | 3(3.1) | 1(1.5) | 4(2.5) |

| | | | | |
|---|---|---|---|---|
| | 충남 | 5(5.2) | 7(10.4) | 12(7.4) |
| | 전남 | 1(1.0) | | 1(0.6) |
| | 경북 | 6(6.3) | 10(14.9) | 16(9.8) |
| | 경남 | 11(11.5) | 14(20.9) | 25(15.3) |
| | 제주 | 2(2.1) | | 2(1.2) |
| 교직 경력 | 1개월 이상~5년 미만 | 10(10.4) | 16(23.9) | 26(16.0) |
| | 5년 이상~10년 미만 | 19(19.8) | 11(16.4) | 30(18.4) |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5(26.0) | 9(13.4) | 34(20.9)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23(24.0) | 5(7.5) | 28(17.2) |
| | 20년 이상~25년 미만 | 9(9.4) | 8(11.9) | 17(10.4) |
| | 25년 이상 | 10(10.4) | 18(26.9) | 28(17.2) |
| 최종 학위 | 학사 | 31(32.3) | 20(29.9) | 51(31.3) |
| | 석사수료 | 10(10.4) | 3(4.5) | 13(8.0) |
| | 석사 | 47(49.0) | 40(59.7) | 87(53.4) |
| | 박사수료 | 7(7.3) | 2(3.0) | 9(5.5) |
| | 박사 | 1(1.0) | 2(3.0) | 3(1.8) |
| 전 체 | | 96(100.0) | 67(100.0) | 163(100.0) |

중 미술영재교육 유경험자(43.3%)는 무경험자(56.7%)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8명의 미술영재교육 경험자들 중 영재교육 참여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31.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연구대상자의 영재교육 참여 경력 명(%)

| 항목 | | 학교급 | | 전체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 미술영재교육 (교육, 행정) 참여 경험 | 유 현재 참여 중 | 19(19.8) | 21(31.4) | 40(24.6) |
| | 유 참여한 적 있음 | 10(10.4) | 8(11.9) | 18(11.0) |
| | 무 참여한 적 없음 | 67(69.8) | 38(56.7) | 105(64.4) |
| 전체 | | 96(100.0) | 67(100.0) | 163(100.0) |
| 영재교육 참여경력 | 무응답 | 6(20.7) | 3(10.3) | 9(15.5)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9(31.0) | 9(31.0) | 18(31.0)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9(31.0) | 6(20.7) | 15(25.9)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4(13.8) | 7(24.1) | 11(19.0) |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3.4) | 3(10.3) | 4(6.9) |
| | 11년 | | 1(3.4) | 1(1.7) |
| 전체 | | 29(100.0) | 29(100.0) | 58(100.0) |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미술영재교육 경험(유, 무)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문항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초 배경 등 선다형 문항에 대해 집단 간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수행하여 빈도(명)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또한 카이제곱($\chi^2$) 독립성 검증(chi-Square Independent Test)을 수행하여 집단 간 응답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카이제곱($\chi^2$) 독립성 검증 수행 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의 셀이 20% 이상인 문항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중 선다형 문항이나 서열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은 카이제곱($\chi^2$) 독립성 검증대신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다시 수행하였다. 둘째, 우선순위별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집단 간 가중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가중치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미술영재 검사 도구 사용 및 연수 경험

### 가. 미술영재 선발 검사 도구의 사용 경험

'학교 또는 미술영재교육기관에서 미술영재를 선발하거나 추천하기 위해 미술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8%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특히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96.2%)의 경우 영재선발을 위한 검사도구의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응답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술교사일수록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객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검사도구의 사용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사용 경험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현재의 미술영재 선발 방식이 교사 또는 평가자의 주관적 검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 미술영재 선발 검사 도구 사용 경험 명(%)

| 항목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초 | 중 | 유 | 무 | |
| 있다 | 19(19.8) | 14(20.9) | 29(50.0) | 4(3.8) | 33(20.2) |
| 없다 | 77(80.2) | 53(79.1) | 29(50.0) | 101(96.2) | 130(79.8) |
| 전체 | 96(100.0) | 67(100.0) | 58(100.0) | 105(100.0) | 163(100.0) |
| $\chi^2$ 검증 | $\chi^2$=0.019, $p$=0.889 | | $\chi^2$=50.457$^{***}$, $p$=0.000 | | |

$^{***}p$<0.001

나.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 관련 연수 경험

‘미술영재의 교사 관찰 평가 도구 이해 및 활용 등에 관련된 연수(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74.0%)의 연수 참여 경험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가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1.4%에 불과하였으나,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62.1%가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일반 미술교사들이 관찰 평가를 활용한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찰 평가와 관련된 연수들이 주로 영재교육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초등 교사 또는 중학교 미술교사를 위한 관련된 연수가 매우 부족함을 시사한다.

<표 6>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와 관련된 연수(설명회) 경험 명(%)

| 항목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초 | 중 | 유 | 무 | |
| 있다 | 25(26.0) | 23(34.3) | 36(62.1) | 12(11.4) | 48(29.4) |
| 없다 | 71(74.0) | 44(65.7) | 22(37.9) | 93(88.6) | 115(70.6) |
| 전체 | 96(100.0) | 67(100.0) | 58(100.0) | 105(100.0) | 163(100.0) |
| $\chi^2$ 검증 | $\chi^2$=0.304, $p$=0.296 | | $\chi^2$=46.117$^{***}$, $p$=0.000 | | |

$^{***}p<0.001$

## 2.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한 인식

가.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의 필요성

일선 학교 현장에서 미술영재를 선발 추천하기 위한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 사용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학교에서 미술영재의 선발을 위해 교사 관찰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7%만이 부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84.7%(그렇다 57.7%, 매우 그렇다 27.0%)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일선 학교에서 미술영재를 선발 추천함에 있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초등학교 교사들($M$=4.13, 87.5%)이 중학교 교사들($M$=3.99, 80.6%)보다 다소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재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필요성에 대해 다소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79.3%(그렇다 44.8%, 매우 그렇다 34.5%)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87.7%(그렇다 64.8%, 매우 그렇다 22.9%)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미술영재 판별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사 관찰 평가 도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일선 학교 교사의 교사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한 필요성 요구를 감안할 때 관련된 연수 또는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관찰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명(%)

| 항목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 초 | 중 | 유 | 무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2(3.0) | 1(1.7) | 1(1.0) | 2(1.2) |
| 그렇지 않다 | | 3(3.1) | 1(1.5) | 1(1.7) | 3(2.9) | 4(2.5) |
| 보통이다 | | 9(9.4) | 10(14.9) | 10(17.2) | 9(8.6) | 19(11.7) |
| 그렇다 | | 57(59.4) | 37(55.2) | 26(44.8) | 68(64.8) | 94(57.7) |
| 매우 그렇다 | | 27(28.1) | 17(25.4) | 20(34.5) | 24(22.9) | 44(27.0) |
| 전체 | | 96(100.0) | 67(100.0) | 58(100.0) | 105(100.0) | 163(100.0) |
| *t* 검증 | *M(SD)* | 4.13(0.70) | 3.99(0.86) | 4.09(0.86) | 4.06(0.72) | |
| | *t, p* | *t*=1.141, *p*=0.255 | | *t*=0.230, *p*=0.819 | | |

나. 미술영재의 행동특성 평가 도구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에 대한 관찰 평가는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질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미술영재의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81.3%(그렇다 62.7%, 매우 그렇다 18.6%)가 미술영재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학교급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M*=4.07, 88.5%)은 중학교 교사들(*M*=3.77, 70.8%)보다 미술영재에 대한 행동 특성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초등학교급에서 미술영재의 행동특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더욱 필요로 인식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의 교과제 수업 운영에 비해 담임제 방식의 운영 특성 상 학생의 수업 및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영재교육 경험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영재교육 경험 교사(*M*=3.91)보다는 경험이 없는

<표 8> 미술영재의 행동특성 평가 도구에 대한 인식 명(%)

| 항목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 초 | 중 | 유 | 무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1(1.0) | 1(1.5) | | 2(1.9) | 2(1.2) |
| 그렇지 않다 | | 2(2.1) | 2(3.1) | 3(5.4) | 1(1.0) | 4(2.5) |
| 보통이다 | | 8(8.3) | 16(24.6) | 12(21.4) | 12(11.4) | 24(14.9) |
| 그렇다 | | 63(65.6) | 38(58.5) | 28(50.0) | 73(69.5) | 101(62.7) |
| 매우 그렇다 | | 22(22.9) | 8(12.3) | 13(23.2) | 17(16.2) | 30(18.6) |
| 전체 | | 96(100.0) | 65(100.0) | 56(100.0) | 105(100.0) | 161(100.0) |
| *t*검증 | *M(SD)* | 4.07(0.70) | 3.77(0.77) | 3.91(0.82) | 3.97(0.70) | |
| | *t, p* | *t*=2.601*, *p*=0.010 | | *t*=-0.472, *p*=0.638 | | |

*$p<0.05$

교사($M$=3.97)일수록 미술영재 행동특성 평가 도구의 필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73.2%(그렇다 50.0%, 매우 그렇다 23.2%)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85.7%(그렇다 69.5%, 매우 그렇다 16.2%)가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는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일수록 미술영재의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미술영재의 행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필요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 있음을 보여준다..

### 다.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성에 대한 관찰 평가는 평소의 행동적 특성 외에도 실제의 미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연구자는 실제의 미술 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대상자의 85.2%(그렇다 61.7%, 매우 그렇다 23.5%)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미술과제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 평가하는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86.5%, 중학교 83.4%).

영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미술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척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86.2%,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84.6%가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인식 명(%)

| 항목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 초 | 중 | 유 | 무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1(1.0) | | | 1(1.0) | 1(0.6) |
| 그렇지 않다 | | 2(2.1) | | | 2(1.9) | 2(1.2) |
| 보통이다 | | 10(10.4) | 11(16.7) | 8(13.8) | 13(12.5) | 21(13.0) |
| 그렇다 | | 57(59.4) | 43(65.2) | 31(53.4) | 69(66.3) | 100(61.7) |
| 매우그렇다 | | 26(27.1) | 12(18.2) | 19(32.8) | 19(18.3) | 38(23.5) |
| 전체 | | 96(100.0) | 66(100.0) | 58(100.0) | 104(100.0) | 162(100.0) |
| $t$검증 | $M(SD)$ | 4.09(0.74) | 4.02(0.59) | 4.19(0.66) | 3.99(0.69) | |
| | $t$, $p$ | $t$=0.717, $p$=0.474 | | $t$=1.789, $p$=0.075 | | |

이상과 같이 미술영재에 대한 관찰평가도구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 수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미술영재 행동특성에 대한 평가 도구와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미술영재에 대한 행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중학교 교사들(70.8%)보다 초등학교 교사들(88.5%)이, 그리고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73.2%)보다 영재교육 경험이 없

는 교사들(87.7%)이 더 높은 응답비율로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술영재에 대한 과제수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학교급 및 영재교육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83.0%이상의 응답 비율로 도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교사들(83.4%)과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86.2%)은 미술영재 행동특성 평가 도구의 필요성의 응답비율보다 과제수행 과정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 중 미술영재의 행동특성에 대한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중학교 교사들과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도구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미술영재의 관찰 평가 도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

| 구분 | |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한 인식 |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에 대한 인식 | 미술영재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인식 |
|---|---|---|---|---|
| 학교급 (%) | 초 | 87.5 | 88.5 | 86.5 |
| | 중 | 80.6 | 70.8 | 83.4 |
| 영재교육 경험 (%) | 유 | 79.3 | 73.2 | 86.2 |
| | 무 | 87.7 | 85.7 | 84.6 |

## 3. 교사 관찰 평가 도구 활용의 어려움 및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인식

### 가. 교사 관찰 평가 도구 활용의 어려움

일선 학교에서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평가 도구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도구의 활용 경험 부족'으로 평가 도구 활용 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찰 시간 부족', '도구의 활용 경험 부족'순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찰 시간 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들($M$=296.7)보다 중학교 교사들($M$=352.5)의 가중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중학교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또한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평가 문항 기준 미흡', '업무 과중으로 관찰 시간 부족'순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찰 시간 부족', '도구의 활용 경험 부족'순으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중학교 교사들과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응답한 가장 큰 어려움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찰 시간 부족'의 해소를 위해 업무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으므로 관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도구의 활용 경험 부족'의

문제점은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평가 도구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평가 문항 기준 미흡'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문항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집단 간 응답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소 상이했으나 영재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평가 도구 활용 시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연구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1> 교사 관찰 평가 도구 활용 시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

| 항목 | 학교급 | | *t* | *p* | 영재교육 경험 | | *t* | *p* |
|---|---|---|---|---|---|---|---|---|
| | 초 | 중 | | | 유 | 무 | | |
| 평가 문항 기준 미흡 | 285.4 (151.5) | 300.1 (143.4) | -0.621 | 0.536 | 315.6 (151.8) | 278.1 (144.8) | 1.556 | 0.122 |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 | 300.0 (156.4) | 275.0 (143.6) | 1.021 | 0.309 | 289.1 (161.8) | 290.4 (146.5) | -0.051 | 0.959 |
| 문항 수 과다 | 280.0 (158.2) | 237.1 (145.1) | 1.716 | 0.088 | 254.5 (141.2) | 267.6 (161.2) | -0.507 | 0.613 |
| 업무 과중으로 관찰 시간 부족 | 296.7 (143.4) | 352.5 (134.9) | -2.431* | 0.016 | 305.5 (152.0) | 327.1 (136.5) | -0.899 | 0.370 |
| 도구의 활용 경험 부족 | 311.1 (118.5) | 308.3 (131.9) | 0.132 | 0.896 | 298.1 (114.1) | 316.7 (128.7) | -0.880 | 0.380 |

*$p<0.05$

나.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주관적 평가 문제

미술영재를 선발 추천함에 있어 '평가 문항에 대한 기준 미흡'이 교사 관찰 평가 도구 활용 시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면, 이는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교사들은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관찰 평가 도구는 교사가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 조사 결과,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그렇다 40.5%, 매우 그렇다 5.5%),

<표 12>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

| 항목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 초 | 중 | 유 | 무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7(7.3) | 4(6.0) | 1(1.7) | 10(9.5) | 11(6.7) |
| 그렇지 않다 | | 21(21.9) | 13(19.4) | 15(25.9) | 19(18.1) | 34(20.9) |
| 보통이다 | | 27(28.1) | 16(23.9) | 9(15.5) | 34(32.4) | 43(26.4) |
| 그렇다 | | 34(35.4) | 32(47.8) | 28(48.3) | 38(36.2) | 66(40.5) |
| 매우그렇다 | | 7(7.3) | 2(3.0) | 5(8.6) | 4(3.8) | 9(5.5) |
| 전체 | | 96(100.0) | 67(100.0) | 58(100.0) | 105(100.0) | 163(100.0) |
| *t*검증 | *M(SD)* | 3.14(1.07) | 3.22(1.00) | 3.36(1.02) | 3.07(1.04) | |
| | *t, p* | $t$=-0.533, $p$=0.595 | | $t$=1.747, $p$=0.082 | | |

더 유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지 않다 20.9%)로서 더 유리하다는 응답 비율이 19.4%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56.9%가 유리하다고 응답한 반면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는 40.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40.7%, 중학교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교사 관찰 평가 도구가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3.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는 미술영재를 선발 추천함에 있어 교사 관찰에 의한 평가 도구가 영재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할 때 객관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관건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술영재성 판별과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 평가 도구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에 본 연구자는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개발 및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 가.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에 대한 교사의 관찰 추천제의 틀에서 미술영재를 판별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 '교사 및 학교장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3대 도구로 조사되었다(<표 13> 참조).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가 가장 유용하며, 다음으로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가 유용한 도구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가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나타난 필요성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이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의 필요성보다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에 더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의 필요성에 더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구체적인 미술과제의 수행 능력보다는 행동 전반에서 관찰되는 특성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중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미술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외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M$=418.9)은 '창의성 검사'를 4순위 정도의 유용한 검사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M$=310.5)보다 가중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다른 집단이 '자기 소개서'를 4순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창의성 검사를 다소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대한 우선 순위

| 항목 | 학교급 | | t | p | 영재교육 경험 | | t | p |
|---|---|---|---|---|---|---|---|---|
| | 초 | 중 | | | 유 | 무 | | |
|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 600.0 (90.6) | 555.2 (136.3) | 2.351* | 0.021 | 572.4 (122.5) | 586.7 (108.4) | -0.767 | 0.444 |
|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 | 569.8 (166.1) | 561.2 (159.5) | 0.330 | 0.742 | 532.8 (188.6) | 584.8 (144.6) | -1.824 | 0.071 |
| 교사 및 학교장 추천서 | 417.7 (168.6) | 446.9 (182.5) | -1.037 | 0.301 | 421.1 (166.6) | 434.0 (179.1) | -0.448 | 0.655 |
| 자기 소개서 | 384.8 (152.6) | 388.7 (153.8) | -0.156 | 0.876 | 377.8 (166.7) | 391.0 (145.0) | -0.512 | 0.609 |
| 창의성 검사 | 343.8 (164.4) | 357.6 (176.4) | -0.486 | 0.628 | 418.9 (161.8) | 310.5 (160.8) | 3.922*** | 0.000 |
| 학업성취도 검사 | 254.5 (167.4) | 250.8 (175.6) | 0.129 | 0.898 | 223.1 (159.2) | 269.5 (174.5) | -1.633 | 0.105 |
| 학생생활기록부 | 240.7 (135.8) | 255.9 (157.9) | -0.621 | 0.536 | 264.7 (169.5) | 237.2 (129.5) | 1.009 | 0.316 |

*$p$<0.05, ***$p$<0.001

나. 미술영재성 관찰과 과제 수행 검사에 필요한 시간

미술영재성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한 결과, 미술영재 행동특성 평가의 경우 '최근 6개월(41.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최근 1년(31.1%)'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및 영재교육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일치되는 것으로서 미술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략 6개월~1년의 기간, 즉 최소 한 학기 이상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미술영재의 행동특성 평가를 위해 관찰 기간을 충분히 할애 한다면 <표 8>에서 교사관찰 도구 활용 시 어려움의 하나였던 '업무 과중으로 관찰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4>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평가를 위한 관찰 기간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초 | 중 | 유 | 무 | |
| 최근 1개월 | 3(3.3) | | 1(2.2) | 2(2.0) | 3(2.0) |
| 최근 3개월 | 23(25.6) | 8(13.8) | 10(21.7) | 21(20.6) | 31(20.9) |
| 최근 6개월 | 37(41.1) | 25(43.1) | 20(43.5) | 42(41.2) | 62(41.9) |
| 최근 1년 | 25(27.8) | 21(36.2) | 13(28.3) | 33(32.4) | 46(31.1) |
| 기타 | 2(2.2) | 4(6.9) | 2(4.3) | 4(3.9) | 6(4.1) |
| 전체 | 90(100.0) | 58(100.0) | 46(100.0) | 102(100.0) | 148(100.0) |

또한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 시 과제 수행 시간으로 3시간(37.2%)이 적합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시간(25.6%)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5> 참

조).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2시간(37.0%)을 더 선호한 반면, 중학교는 3시간(40.6%)을 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미술과제 수행에 필요한 심리적, 신체적 여건과 수업 환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 시 초등학교 미술영재 선발 시 2시간을 과제 수행 시간으로 주고, 중학교 미술영재 선발 시 3시간을 과제 수행 시간으로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를 위한 과제 수행 시간**

| | 학교급 | | 영재교육 경험 | | 전체 |
|---|---|---|---|---|---|
| | 초 | 중 | 유 | 무 | |
| 1시간 | 3(3.3) | 1(1.6) | 2(3.7) | 2(2.0) | 4(2.6) |
| 2시간 | 34(37.0) | 6(9.4) | 13(24.1) | 27(26.5) | 40(25.6) |
| 3시간 | 32(34.8) | 26(40.6) | 20(37.0) | 38(37.3) | 58(37.2) |
| 4시간 | 14(15.2) | 22(34.4) | 13(24.1) | 23(22.5) | 36(23.1) |
| 기타 | 9(9.8) | 9(14.1) | 6(11.1) | 12(11.8) | 18(11.5) |
| 전체 | 92(100.0) | 64(100.0) | 54(100.0) | 102(100.0) | 156(100.0) |
| $\chi^2$ | $\chi^2=18.571^{**}$, $p=0.001$ | | $\chi^2=0.546$, $p=0.969$ | | |

$^{**}p<0.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술영재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한 미술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검사 도구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의 관찰 평가 도구에 대해 응답자의 84.7%가 동의한 반면 3.7%만이 부정적 응답을 보인바와 같이, 초·중학교의 미술교사 대부분은 미술영재를 선발·추천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는 미술영재 선발에서 실기 평가를 중심으로 한 현행 선발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사의 관찰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교사들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사 관찰 평가 도구의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기순과 이정용(2011)은 관찰·추천제의 개선점으로 교사의 전문성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 준수, 행정적 지원 확보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뢰할 만하며 공정 타당한 관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사 관찰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사 연수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50%만이 미술영재의 교사 관찰 평가 도구와 관련된 연수를 받은 반면,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미술교사의 절대 다수(96.2%)가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술교사들에 대한

관련 연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미술교사에 대한 연수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관찰에 의한 선발이 보다 확대되고 그에 따른 현장 교사의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경우, 미술영재성 판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미술영재의 적절한 선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미술교사에 대해서도 교사 관찰 평가에 관한 연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 분야에서 교사 관찰 평가 도구를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서 '평가 문항에 대한 기준 미흡'과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된다. 이와 함께 교사 관찰 평가 도구는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56.9%가 유리하다고 응답한 반면 영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는 40.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40.7%, 중학교의 경우 5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교사관찰 평가 도구가 평소 선호하는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넷째,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검사 도구 가운데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와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미술영재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략 6개월~1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의 경우, 3시간(37.2%)~2시간(25.6%)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술영재의 행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학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모두에서 동일한 응답을 보인 반면,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2시간, 중학교의 경우 약 3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의 미술과제 수행에 필요한 심리적, 신체적 여건과 수업 환경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장의 초·중학교 미술교사들 사이에는 교사의 관찰 추천 방식이 미술영재성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나, 교사의 주관적 평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관련된 연수를 확대함으로써 각 단위 학교에서의 미술영재성 판별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미술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교사 관찰 추천 도구 가운데 평상시의 미술영재의 행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와 미술영재의 과제수행 과정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가 가장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며, 미술영재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의 경우 최소 6개월, 미술영재 과제수행 검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2시간, 중학교는 3시간의 과제 관찰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의 2가지 검사는 단독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미술영재성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병직(2010). 미술영재의 다중지능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4**(2), 1-43.

강병직(2011). 미술영재의 잠재성 평가 방안 연구. **미술교육논총, 11**(1), 25-56.

교육통계연보(201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5.11.4.)

김건희 (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안에서 미술영재의 선발현황과 개선방향. **문화정책논총, 26**(2), 152-173.

서울시 교육청(2012), **2012년 영재교육 세부추진 계획**.

신보미(2010). 수학 영재 관찰·추천 도구의 개발과 모의 적용 사례 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31-59.

이미경, 강병직(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지현(2013). **미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2015).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 (검색일: 2015.11.4.)

한기순, 이정용(2011).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 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영재교육연구, 21**(1).

Clark, G. & Zimmerman, A. (1984). *Educating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 The Visual Art Teachers' Perceptions on the Observ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the Artistic Giftednes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youngjik Kang**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eeJu Maeng**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searched the perception of observational evaluation system in visual art whic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have in mind. As results, observational evaluation system in visual art is widely accepted as important and efficient to diagnose the artistic giftedness. At the same time, subjectiveness of the system might be advantageous for student for whom teacher get favor and in-service program related to observational evaluation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ing to the demand from field. In spite of this, the scale f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visual art and the test for artistic task performance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and needed tools for evaluating artistic giftedness. Following the results, in order to raise up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in visual art, the scales f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visual art and the test for artistic task performance should be developed first and foremost.

**Key Words:** art, artistically gifted, observational evaluation system, scales f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visual art, test for artistic task performance

| | |
|---|---|
| 1차 원고접수: | 2016년 2월 15일 |
| 수정원고접수: | 2016년 3월 14일 |
| 최종게재결정: | 2016년 3월 29일 |